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

세종정책브리프

Sejong Policy Brief

No. 2020-14
(2020.10.19)

미중 전략 경쟁시대 도래에 따른 중국 군사안보전략의 추진 방향과 함의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jameschung@sejong.org

차 례

핵심요약

Ⅰ. 문제제기
Ⅱ. 미국의 대중군사안보전략변화에 따른 중국의 인식
Ⅲ. 중국 군사안보전략의 추진 방향
Ⅳ. 주요 함의와 시사점

본 정책브리프는 필자가 지난 세종연구소 정세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세종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핵심 요약]

1 미중 전략 경쟁 시대 도래

○ 금년(2020년)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중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갈등의 범위가 무역/통상 범위에서 벗어나 군사-안보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의 군 현대화를 강조한 **강군의 꿈(强军梦)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됨

○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봉쇄전략과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분명히 명시한 새로운 대중강경전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미중 전략경쟁시대를 밝힘.

○ 미국의 새로운 대중강경전략에 대해 중국 역시 강경한 의지를 보이며 2049년까지 세계 일류 강대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는 중국의 꿈(中国梦)실현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절대 굴복하거나 물러서지 않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함.

2 미국의 대중군사안보전략 변화와 중국의 인식

○ 현재 미국은 중국의 A2/AD 대응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군사능력을 통합하여 작전의 주도권을 확보, 유지, 활용하고 적을 격퇴하며 군사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다영역 전투 (Multi Domain Battle)개념을 발표하고 5개 전장 영역에서 중국의 A2/AD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다영역작전(Multi Domain Operation) 등을 본격화 함.

○ 향후 미국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대중 군사안보위협 대응차원에서 해-공군력, 핵미사일전력, 사이버, 우주영역 등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아태지역 군사력 발전 방향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임.

❍ 최근 중국은 미국의 사드배치, 미사일 방어망(MD)구축, 한일 지소미아(GSOMIA)추진, 한미일 3자 동맹 강화, 인도 및 호주와의 군사협력 강화, 인도-태평양전략 추진, 아시아판 나토(NATO)인 쿼드 플러스 본격화 등을 모두 미국의 새로운 대중강경책이자 군사안보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인식함.

❍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적 군사대결을 벌일 경우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 최대한 시간을 갖고 역내 지역 분쟁(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 수위 조절과 동시에 외교전, 여론전, 정보전 등을 총동원하여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不戰勝)' 전략을 세우고 있음.

3 중국 군사안보전략의 추진 방향

❍ 중국군은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 중국의 평화발전과 현대화를 이룩하는 것이라 보고 강군의 꿈(强军梦) 건설 목표를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는 목표 아래 2025년까지 기본적으로 기계화 완료, 정보화(信息化)에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달성하고 2049년에는 세계 일류군대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을 밝힘.

❍ 신시대 중국의 적극방어 군사전략은 방어, 자위(自衛), 후발제인(後發制人) 원칙을 견지하고 적극 방어를 실시한다는 것으로 이미 지속적인 국방개혁과 군 현대화를 통한 기계화와 정보화 역량 증대, 군의 합동성 강화, 군구 현대화와 지휘구조 개편, 대육군 중심에서 해/공군 중심 군조직 개편, 미래전과 사이버전에 대비한 전략지원부대(전자사이버, 전략첩보, 우주군)신설, 군민(軍民)융합발전 전략 강화 등 21세기 전쟁에 맞춰 괄목한 진전과 성과를 보여줌.

❍ **육군**은 기존 지역방위형에서 전역 작전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정밀작전, 입체작전,전역작전, 다기능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조직되었으며, **해군**은 근해방어형에서 원해방위형으로 전환을 통해 전략

적 억제와 반격, 해상기동작전, 해상합동작전 등 다양한 영역과 역할에 부합되는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공군**은 영토방공형에서 공방겸비용으로 전환하면서 조기경보,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전략수송 능력 등을 보강하였으며 **로켓군**은 핵 억제 및 반격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전략적 억제능력 등을 대폭 강화함.

4 주요 시사점과 함의

❍ 미국은 중국을 새로운 군사안보적 위협이자 도전으로 상정하고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본격화, 중국의 A2/AD전략 강경대응, 핵미사일 현대화 및 INF 탈퇴, 신형첨단무기개발, 역내동맹국들과의 군사안보 협력강화 등 각종 정책초치들을 추진하며 새로운 대중군사안보전략을 본격화 함.

❍ 중국은 2035년까지 국방개혁과 군사력 현대화를 이루고 육/해/공군, 우주/정보/사이버, 민군합동능력 등을 확보하여 나아가 2049년까지 어떠한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기는(能打仗、打勝仗) 세계일류군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한 전략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미국과의 군사안보적 경쟁과 갈등은 점차 격화될 것으로 보임.

❍ 최근 미중간 새로운 차원의 군비경쟁, 대만해협, 동/남중국해, 인도-태평양 전략, 아시아판 나토 쿼드(Quad) 추진, 북핵문제 등을 놓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 우리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쿼드 동참여부와 같은 민감한 외교안보사안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향후 중국군은 핵심이익 수호와 미국의 역내 군사력 개입 차단을 위해 무기 현대화와 군사력 강화 등을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한국은 우호적인 미중관계 촉구를 적극 도모하면서 대화가 거의 중단된 중국과의 군사안보 소통채널 구축도 다시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I. 문제 제기

○ 금년(2020년)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중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갈등의 범위가 무역/통상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보안법 및 대만 해협갈등, 남중국해 문제 등 군사-안보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함.

- 더욱이 트럼프 집권 초기에는 미중 갈등이 구체화되거나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시진핑 지도부의 중국의 꿈(中國夢)에 기반하는 강군의 꿈(強軍夢)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미중간 군사안보분야까지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됨.

○ 최근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공개압박과 봉쇄전략과 같은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분명히 명시한 미국의 새로운 대중강경 전략 및 정책방향을 담은 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May 20, 2020)를 발표함.[1)]

- 특히 미국은 새로운 대중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의 위협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첫째 중국의 국가주도 보호무역주의와 국가자본주의 위험성, 둘째, 미국적 가치에 대한 도전, 셋째, 안보적 도전으로 구체화하며 미중관계를 사실상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대중강경전략을 본격화한다고 밝힘.

○ 미국의 대중 강경정책에 대해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비화 또는 왜곡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며 2049년까지 세계 일류 강대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의 꿈(中國夢)'을 밝히면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절대 굴복하거나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강력히 천명함.[2)]

---

1)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대중전략보고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과 안보위협 등을 거론하며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을 비롯하여 글로벌 공급방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구상을 가속화며 미국의 동맹국들 참여와 공동연계를 촉구함.

2) 최근 미중갈등이 가열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비하 또는 왜곡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함. 4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항일 승전 75주년 좌담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그 누구든 그 어떤 세력이든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왜곡하고 비하려면 한다면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들을 분리·대립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함. "在新時代繼承和弘揚偉大抗戰精神——論學習貫徹習近平總書記在紀念中國人民抗日戰爭暨世界反法西斯戰爭勝利75周年座談會上重要講話," 『人民日報』 2020年9月4日; "미중 갈등 속 시진핑 "중국공산당·사회주의 비하 용납못해", 『연합뉴스』 2020년9월4일.

- 즉 국내적으로 공산당 일당 체제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대외정책에서는 강력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 중국의 꿈과 핵심이익(core interest)을 강조하며 경제력과 군사력 증대를 바탕으로 신형대국관계와 신형국제관계를 추진하고 상호 핵심이익을 인정하는 새로운 미중관계 구축을 제시함.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위협을 통해 동/남중국해, 대만해협, 인도 국경 지역 등에서 선제적이고 강압적인 군사력 행동을 실행하고 있으며 민군융합(Military-Civil Fusion)전략에 따라 중국 군대의 민간분야 제약 없는 접근과 영향력 확대를 주요 안보적 위협요인으로 지적함.

-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수정주의 전체주의 세력으로 지목하여 강력한 국방비 증액(약 7,160억불) 및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Quad)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부상과 군사적 위협을 대응해 나가겠다는 밝힘.

❍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국방개혁과 군 현대화를 토대로 육·해·공군, 우주·정보·사이버전, 민군(民軍) 합동능력을 제고시켜 나가 중국군을 2049년까지 방어하는 군대가 아닌 어떠한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길 수 (能打仗、打勝仗)있는 세계 일류 군대로 육성시킨다는 강군의 꿈(強軍夢)을 본격화하기 시작함.

- 이미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기계화/정보화 차원의 30만 감군, 군의 합동성 강화, 지역 출신 중심 부정부패 청산과 군구 현대화, 중앙 통제강화와 지휘구조 개편, 전략지원군대와 사이버군/우주군 신설, 중국 특색의 현대화 작전체계 구축, 싸워서 이기는 세계 일류 군대육성, 군민융합(軍民融合)등을 추진함.

❍ 본 브리핑에서는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경제무역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안보분야에서도 갈등과 대결 양상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어 미국의 대중군사전략변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중국 군사안보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특히 미국의 대중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중국의 인식과 전략을 살펴보고 본 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군사안보전략의 추진방향인 강군의 꿈, 신시대 적극방어 군사전략, 중국군 현대화 및 각 군종별 역량 강화를 논의하고자 함.

○ 본 브리핑 작성에 있어서 자료 수집상 제한점이 있었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하며 최대한 검증되고 공개된 자료 위주로 작성하고자 함.

- 이는 중국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군사안보 관련 공개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고 비공개 자료는 입수가 쉽지 않음.

II. 미국의 대중군사안보전략 변화에 따른 중국의 인식

1. 미국의 대중군사안보전략 변화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7년 국방태세성명(DPS: Defense Posture Review)를 통해 미국은 중국이 A2/AD(반접근/지역거부)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공격 미사일 체계를 보완하고, 우주공간과 사이버 작전, 전자전 능력을 확충하였으며 미국이 누려왔던 군사적 영역(육해공)과 지구적 공공재인 우주, 사이버 영역 등 국제공역(global commons)에서 우위가 사라질 수 있는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함.

-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APEC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을 발표하고 중국의 군사-안보적 도전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2017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훼손하는 국가로 지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중장기적 전략적 경쟁을 공식화 함.

- 이를 위해 동적 전략운영(DFE, Dynamic Force Employment)와 전지구적 운용모델(GOM, Global Operating Model), 재래식 전력과 핵미사일 현대화, 중국의 A2/AD 전략 대응을 위한 다영역 작전(MDO, Multi-Domain Operation) 등을 제시함.

○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장기적 군사안보적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최우선 권역으로 설정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동맹국들과 긴밀한 안보협력 증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특히 미국은 중국의 A2/AD 능력 확대에 주목하면서 동맹국들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통해 전략적 경쟁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파트너십

(Partnership), 지역 네트워크 증진(Promoting), 준비태세(Preparedness)를 포함하는 3P개념 강화와 중국의 제1 도련선 內 기정사실화 전략 무력화에 전력 재배치를 추진함.[3)]

○ 중국의 A2/AD 능력 확대와 제1 도련선 내 기정사실화 전략,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전략자산, 중국군 회색지대(gray zone) 활동, 중국의 신속 기동군 대응타격 등이 미군의 역내 군사안보적 영향력을 급격히 축소시켜 나간다고 평가함.

-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A2/AD 전략 대응개념으로 지상군 다영역작전(MOD), 공군 다 영역지휘통제(MDCC), 해군 분산해양작전(DMO), 해병대 원정적진기지작전(EABO)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A2/AD 전략을 극복하고 회색지대 분쟁에 신속히 개입하여 군사전략적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임.[4)]

○ 미국은 최소비용으로 중국의 A2/AD 전략을 타격하고자 특수전을 이용한 MDO를 발전시키는 등 중국의 A2/AD 전략 능력을 무력화하는데 집중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MDO 수행에 필요한 전투 지원과 군사 장비의 사전 배치 등을 추진함.[5)]

- 특히 미국은 해상, 공군전력의 동적배치(F-22, F-35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배치)를 통해 원정작전을 향상하고 비정규전 수행능력이 있는 특수작전, 반잠수작전 능력, MDO 수행 지원을 위한 사이버 및 우주전 장비, ISR 능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2017년 미국은 중국의 A2/AD 대응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능력을 통합하여 경쟁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기회를 만들어 작전의 주도권을 확,유 지, 활용하고 적을 격퇴하며 군사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다영역 전투(Multi Domain Battle)개념을 발표하고 이어 2018년에는 5개 전장영역에서 중국

3) 미국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해 정밀타격이 가능한 대공방어망과 각종 탄도미사일 전력을 지휘통제체제로 연결하여 역내 미군의 자유로운 군사력 활동을 접근하는 것을 차단(반접근:Anti Access)하고 접근에 성공한 군사력의 자유로운 작전 수행을 거부하는(지역거부: Area Denial)공세적 군사전략으로 평가하고 있음.

4) 미국은 중국의 A2/AD 전략 대응차원에서 지상군 다영역작전(MOD:Multi-Domail Operation), 공군 다영역 지휘통제(MDCC:Multi-Domain Command and Control), 해군 분산해양작전(DMO: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 해병대 원정전진기지작전(EABO:Expeditionary Advance Based Operation) 등의 군사작전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5) 그동안 미국이 우세를 보여주었던 공중/해상 작전에서 중국의 A2/AD 전략에 의해 무력화 될 경우 지상 전략(해병대)을 중심으로 중국 연안지역을 군사적으로 장악하여 중국의 경제사회활동에 타격을 주어 정치군사적 압박을 가한다는 구상임.

의 A2/AD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다영역 작전(Multi Domain Operation)등을 본격화 함.

- 한편 2019년 미 국방부는 중국의 A2/AD 전략에 대응하고 미국 주도의 연합군을 우주와 사이버를 포함한 모든 영역(All Domain)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세계적 차원의 통합작전(Globally Integrated Operation)수행을 위한 새로운 합동작전기본개념2030(CCJO 2030: Capstone Concept for Joint Operations Joint Force 2030)을 제시함.

○ 향후 미국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대중 군사안보위협 대응차원에서 해-공군력, 핵미사일전력, 사이버, 우주 영역 등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아태지역 군사력 발전 방향을 본격화해 추진한다는 구상 임.

○ 이미 신형 컬럼비아급 전략 핵잠수함 증강과 전략 핵억제력 강화, 육군 다영역 기동부대와 5세대 첨단 전투기 배치, 사거리 연장 공대지 미사일, 고성능 중거리 공대공, 장거리 대함 미사일, 대지/대함/BMD 구축함, 전자/사이버전 능력 강화 등을 전개하기 시작함.

2. 중국의 대미군사안보전략 인식

○ 지난해(2019년)중국이 발표한 국방백서를 살펴보면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시행 및 새로운 군비증강으로 인해 역내 지역 안보정세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핵미사일, 우주, 사이버, 미사일 방어능력(MD)능력을 강화에 따라 미중간 전략적 균형과 안정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함.

- 한편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대만문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강경정책에 발맞추어 시행한 항행의 자유작전, 미국의 행정부 고위층 대만 방문과 무기판매, 하나의 중국원칙 훼손 시도 등으로 인해 자국의 안보를 크게 침해하며 역내 군사안보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대미 무력시위와 함께 미국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함.[6)]

6) 지난 9월17일 대만을 공식 방문한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차관에 반발하는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노골적 무력시위 군사 활동을 벌이며 미국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함. 중국은 지난달 10일 대만을 방문한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회견을 앞두고도 전투기로 중국과 대만 사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하며 무력시위를 하였으며 중국군 동부전구 장춘후이(張春暉) 대변인은 중국군의 대만해협 순항에 대해 "대만과 그 부속 도서는 중국 영토로 분리할 수 없는 일부"라면서 "대만해협의 안전한 정세와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라는 강경한 밝힘. "미 국무부 차관 대만 방문에 성난 중국…고강도 무력시위," 『연합뉴스』 2020년9월18일.

○ 최근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Quad)플러스 추진으로 군사안보적 압박과 불안정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INF(중거리 미사일 조약) 탈퇴 및 새로운 첨단무기 배치 추진, 군사개입 확대와 동맹국가(일본, 호주 등)군사협력관계 등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는 중이라 평가함.

- 특히 중국은 미국의 사드배치, 미사일 방어망(MD)구축, 한일 지소미아(GSOMIA)추진, 한미일 3자 동맹 강화, 인도 및 호주와의 군사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과 아시아판 나토(NATO) 쿼드 플러스 본격화 등을 모두 미국의 새로운 대중강경책이자 군사안보 포위망 구축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 인식함.

○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 민족대단결, 정치안정을 통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미국의 본격적인 대중강경정책과 군사안보적 위협 등으로 인해 복잡하고 엄중한 군사안보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어 자국의 핵심이익(核心利益)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바라봄.

- 더욱이 미국의 대만해협 군사안보적 긴장 고조,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작전 전개, 티베트 (藏獨)및 신장위구르(東突) 독립세력 지원 등을 통해 중국의 핵심이익 도전 및 군사안보위협을 가중시켜 나가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이 세계 제1위 군사대국에도 불구하고 역내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 대규모 군비증강을 통해 압도적인 군사우위를 추구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군사기술 혁신과 제도개혁, 인공지능(AI), 양자정보, 빅데이타,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등을 첨단군사과학기술 분야와 연계하여 새로운 차원의 미중간 군비경쟁도 야기시키고 있다는 인식함.

- 물론 최근 중국도 핵 항공모함 건조, 스텔스 전투기 양산, 드론 및 탄도미사일 개량, 우주항법체계 구축, 사이버 능력 강화 등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투자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군사 기술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미국과의 첨단무기분야 경쟁이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함.

○ 아직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인식하고 있어 전면적 군사대결을 벌일 경우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 최대한 시간을 갖고 역내 지역 분쟁(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 수위 조절과 동시에 외교전, 여론전, 정보전 등을 총동원하여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不戰勝)' 전략을 세우고 있음.

- 예컨대 남중국해 도서지역에 각종 미사일, 방공체계, 전자전, 수상함, 인공위성, 군수 및 병참 능력 등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며 굳히기 혹은 기정사실(fait accompli)전략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국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을 전개함.

○ 최근 중국군의 임무도 미국의 역내 군사력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무력충돌 발생 시 신속하게 승리한다는 대응으로 전환되었으며 기존 국내 안정화와 본토 방어에 초점을 맞추었던 군사전략에서 벗어나 대만, 동/남중국해 문제 등을 포함한 핵심이익 수호와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군사작전과 실전훈련시행, 첨단무기 개발과 도입 등을 본격화하여 역내분쟁에 적극 대비하기 시작함.

- 특히 중국군은 미군의 정밀타격 무기와 같은 2차 옵셋 군사기술을 활용한 현대전쟁에서 대응하기 위해 중국 역시 추가 항모 및 구축함 건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둥펑(DF)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량 및 증강, 첨단조기경보 및 공중통제능력 확보, 우주항법위성체계 구축, 사이버 전력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한편 중국군은 역내 지역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자 군 현대화, 정보화와 첨단화를 토대로 2030년까지 제한적 국지전 수행능력에서 벗어나 높은 수준의 전역급 작전능력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A2/AD 전략 강화, 핵 억제력과 원거리 작전 능력 강화, 정밀타격무기 증강, 핵항공모함 추가건조, 전략핵폭격기(젠홍-7)도입 등 작전능력 강화와 신형 무기 개발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중임.

Ⅲ. 중국 군사안보전략의 추진방향

1. '강군의 꿈(強軍夢)' 본격화

○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한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과 중화민족 위대한 중흥’ 구호는 단지 경제적으로 부강한 중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049년까지 강한 중국 달성을 위해 두 개의 백년(兩個百年: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과 연계하여 강군흥국(強軍興國)표어 아래 핵심이익 수호, 국방개혁과 군현대화 달성, 싸워서 이기는 군대인 강군의 꿈 추진을 본격화 함.

- 특히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각종 주변지역 분쟁 및 국지전 수행에 부합하는 군대로 육성하기 위해 전쟁 이외 군사작전(MOOTW), 사이버전자통합전, 특수부대육성, 해군 육전대(해병대)창설 등 국지전, 정보전, 비대칭전 등 분야와 전력강화에 상당한 투자와 역량을 투입하고 있음.

○ 현재 중국군은 역내지역에서 확실한 군사적 우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군 현대화를 통한 국방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고 주변지역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함으로 자국의 핵심이익 지역인 대만, 동/남중국해 등을 확실히 수호하고 나아가 2025년까지 제1도련선 내 미군을 타격하고 억제할 수 있는 자국의 군사안보적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임.

- 이를 위해 중국군은 자국의 커진 국제적 위상과 국력에 부합하는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 평화발전과 현대화를 이룩하는 것이며 강군의 꿈 목표를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는 목표 아래 2025년까지 기본적으로 군 기계화 완료, 정보화(信息化)에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달성하고 2049년에는 세계 일류군대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을 밝힘.

○ 시진핑 지도부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能打仗、打勝仗)인 강군의 꿈 달성을 위해 정치강군, 개혁강군, 과학기술흥군, 법치강군 등을 강조하며 전체 국방비도 2018년 1조 1,289억 위안(약 193조원), 2019년 1조1,800억 위안(약 204조원), 2020년 1조 2680억 위안(약 220조원)으로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7)]

- 이미 전세계 군사비 지출 규모면에서 미국의 38%에 이어 2위인 14%를 차지하였으나 지속적인 실전화 훈련 및 군 현대화뿐만 아니라 핵항공모함, 이지스함, 스텔스 폭격기, 초음속미사일, 우주항법위성체계, 인공지능(AI) 전자전, 로봇군 등과 같은 첨단 무기개발들을 고려할 때 국방비는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신형국제관계를 강조하며 주동작위(主動作爲:해야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와 분발유위(奮發有爲:더욱 분발하여 성과를 내다)에 기반한 강한중국 건설과 강군의 꿈을 본격화하기 시작함.

---

7)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세를 살펴보면 2011-2015년 10.1-12.2%를 10% 이상 성장세를 보여주었으나 2016-2018년에는 10% 이하인 7.0-8.0%로 다소 떨어졌으나 전체 총액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 군사대국으로 자리매김함.

- 즉 중국의 커진 국력과 새로운 안보적 환경을 고려하여 신시기(新時期), 신형세(新形勢), 신시대(新時代)에 맞춰 대내외 정세 변화와 정책에 부합되는 중국군의 형상을 강군에서 세계 일류군대를 지향한다는 강군의 꿈으로 보다 구체화 함.

- 더욱이 시진핑 지도부는 과거 지도부에 비해 핵심이익 수호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싸워서 이기는 군대인 강군 달성과 군사력 현대화를 추구하면서 역내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의 본격적인 전략경쟁에 진입함.

○ 시진핑 지도부는 강군의 꿈을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군이 나가야할 강군지로(強軍之路)로 격상시키며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구축을 위해 견고한 국방과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 국가안보 수호와 평화발전 노선에 가장 부합하며 견지해야 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군의 길(強軍之路)이라 강조함.

- 특히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미국과의 군사안보적 갈등이 점차 고조되면서 국가안보와 핵심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중국 특색 강군의 길과 강군의 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함.

2. '신시대 적극방어 군사전략' 추진

○ 지난 2017년 10월에 열린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신시대(新時代)진입을 선포하며 신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강(強)이며 강은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이자 새로운 시대인 “서강아약”(西強我弱)에 맞춰 중국군도 국제무대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되며 이를 위해 신시대 적극방어 군사전략(新時代積極防禦軍事戰略)를 새롭게 채택하여 추진하기 시작함.

- 특히 신시대 중국의 적극방어 군사전략은 방어, 자위(自衛), 후발제인(後發制人) 원칙을 견지하고 적극 방어를 실시한다는 것으로 "남이 나를 범하지 않으면 나도 남을 범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 남이 나를 범한다면 나도 반드시 남을 범할 것이다(人不犯我我不犯人,人若犯我我必犯人)"는 전략하에 중국 특색(特色) 강군의 길 견지와 싸워서 이기는 군대(能打仗、打勝仗)건설을 강조함.[8)]

8) 중국군이 제시한 후발제인(後發制人)전략은 순자병법 의병 편에 나오는 것으로 전법으로 적을 상대할 때 먼저 한걸음 양보하여 형세를 판단한 이후 적의 약점을 분석 후 공격하여 일거에 제압한다는 중국의 고대 병법을 활용한 전략임.

❍ 2019년 중국 국방부가 밝힌 신시대 적극방어 군사전략의 주요 사명으로 첫째, 국가영토, 주권, 해양권익 수호, 둘째, 상시 전투준비태세 유지, 셋째, 실전화 군사훈련 실시, 넷째, 핵심안보이익 수호, 다섯째, 대테러전 및 안정유지 활동, 여섯째, 해외이익 수호, 일곱째, 재난재해 활동 참여로 명시하고 있음.

- 한편 중국군은 핵/미사일,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 이익 수호를 신시대 군대의 주요임무로 규정하며 새로운 전장인 핵/미사일,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새롭게 창설된 전략지원부대(戰略支援部隊)역량 강화와 함께 자국의 영토, 영해, 영공을 벗어난 원거리 기동훈련, 러시아를 포함한 SCO(상하이협력기구)국가들과 각종 대테러전 및 연합훈련 실시, 실전과 유사한 고강한 군사훈련 등을 펼쳐 나감.

❍ 중국의 적극방어 군사전략은 수동적 방어 개념이 아닌 적의 공격과 방어를 위한 확전방지와 주도권 장악을 위한 군사전략으로 대만해협과 동/남중국해 등 주변지역에서 분쟁발생 시 미군의 해군력 접근을 차단하고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상 보복과 억제능력을 구비하는 능력 등을 내포함.

- 즉 중국은 대만해협, 동/남중국해 등 지역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대비와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형 중장거리 둥펑(DF) 탄도미사일 배치, 실탄사격훈련, 대규모 항공모함 전단 해상 연합훈련, 강도 높은 상륙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음.

❍ 2020년 1월 2일 시진핑 주석은 전군에 훈련 개시동원을 알리는 '중앙군위 2020년 제1호 명령'을 하달하며 중국군의 현황태세와 대내외 정세변화에 맞게 상대의 적을 면밀히 관찰하며 전장 환경에 맞춰 실전화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을 강조함.

- 지난 2018년 제1차 훈련개시동원 하달 시에는 군사훈련 실전화 수준 향상 제고를 요구하였고 2019년 제2차 훈련개시동원 하달 시에는 실전화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및 장비의 질적 수준 제고를 강조하였으나 2020년 훈련개시동원에서는 적을 상대로 하는 실전화 훈련을 강조하여 강군의 꿈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확고한 의지가 재차 드러났으며 중국군의 커진 힘과 위상을 보여줌.

○ 최근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남중국해를 시작으로 말라카 해협-뱅골만-아라비아해-홍해를 연결하는 주요 지역에 해상거점을 적극 구축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부티 도랄레항을 시작으로 예멘 아덴항, 오만 실라라랑, 사우디 지다항, 엘살바도르 라 우니온항, 파키스탄 지와니항 등에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을 본격화하기 시작함.

- 한편 중국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지역 내 이슬람 테러조직(IS, 알카에다 등)을 소탕하기 위해 신장위구르 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프카니스탄 와한(Wahan Corridor)회랑지대에 중국의 대테러 훈련 및 소탕을 위한 해외군사훈련기지가 건설 중에 있다는 보도가 줄곧 나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되고 있지 않음.

[그림 1]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해외군사활동 현황



출처: 심현섭, "시진핑 시기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함의: 중국 국가 및 군사전략, 군 구조개편 방향의 상호연계성을 중심으로",「군사」Vol-No.103(2017).

○ 시진핑 지도부는 강력한 실전화 훈련과 국방개혁, 군현대화로 인해 육-해-공군, 우주-정보-사이버군 등을 제고시켰으며 더 이상 방어하는 군대가 아닌 어떠한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적극방어 군사전략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둠.

- 이미 지속적인 국방개혁과 군 현대화를 통한 기계화와 정보화 역량 증대, 군의 합동성 강화, 군구 현대화와 지휘구조 개편, 대육군 중심에서 해/공군 중심 군조직 개편, 미래전과 사이버전에 대비한 전략지원부대(전자사이버, 전략첩보, 우주군)신설, 군민(軍民)융합발전 전략 강화 등 21세기 전쟁에 맞춰 다양한 방면에서 괄목할 진전과 성과를 보여줌.[9)]

3. 중국군 현대화 및 각 군종별 역량강화[10)]

❍ 최근 중국군은 미군 역내 개입 저지를 위한 A2/AD 전략, 핵/미사일 억제력, 군사력 투사 확대를 보장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동시에 새로운 전장인 우주전, 전자전, 사이버전 등 능력 향상에도 초점을 맞추어 진행 중에 있으며 군 지휘체계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영도관리체계(군정)과 작전지휘체계(군령)을 행사하도록 개편하여 영도관리체계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육/해/공군과 로켓군, 작전지원을 담당하는 전략지원부대에 이르는 중앙군사위원회-군종-부대로 군정체계를 새롭게 정립함.

- 한편 작전지휘체계는 연합 및 합공작전지휘체계를 신설하고 기존의 7개 군구를 5대 전구로 개편하여 중앙군사위원회-전구-부대로 이어지는 군령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병력감축과 부대편제를 최적화하여 기존의 인력집약형에서 과학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형태의 작전 역량 강화차원에서 특수전, 입체공방, 상륙작전, 원해방어, 전략수송 등이 신설되고 병력은 30만명을 감축한 200만명으로 축소됨.

❍ **육군**은 기존 지역방위형에서 전역 작전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정밀작전, 입체작전,전역작전, 다기능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조직되었으며 육군의 집단군을 18개에서 13개로 축소하고 지휘체계를 군(군단)-여단-대대체제로 개편하고 집단군 산하 예하부대로 6개 기동여단과 6개 작전지원 및 작전지속지원여단을 편승하여 독립군사작전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재편함.

- 특히 집단군 산하 기동여단 예하대대는 중(重),중(中),경(輕)대대로 편성하고 기동성과 융통성을 보장하여 합동작전의 전술제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으며 경(輕)대대는 고기동성, 산악, 정글, 공중강습, 모터사이클 대대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모든 전투와 작전환경에 투입이 가능하도록 구성됨.

---

9) 현재 중국의 군민융합(軍民融合)발전전략은 미국 정부의 군비지출 확대를 유도하여 대규모 군사기업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의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와 일정부분 유사하나 국방부와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로 설명되는 미국과는 달리 당과 국가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첨단무기의 현대화와 민영기업 기술발전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

10) 상기 내용은 中國國防部, "新時代的中國國防," 『中國政府網』 2019年7月24日; 정재흥, "2019 중국 국방백서 분석과 평가",「세종정책브리프」 2019-13호 (2019); 국방정보본부,「2019 중국 국방백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2019); 이흥석, "중국 강군몽 추진 동향과 전략,「중소연구」 제44권제2호 (2020);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au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RC 2019*,(Washington D.C: 2019, DoD) 등을 요약하여 정리함.

- 한편 티벳과 같은 고산지대에 운용이 적합하고 정보화 능력을 구비한 국내 자체생산 15식 경(輕)전차, 저고도 방공무기체계로 능동레이다 유도시스템을 갖춘 야전방공미사일체계인 HQ(紅旗)-17A, HQ-16B, 중국 최초 독자 중형 헬기 Z(直)-20 등도 새롭게 선보임.

○ **해군**은 근해방어형에서 원해방위형으로 전환을 통해 전략적 억제와 반격, 해상기동작전, 해상합동작전 등 다양한 영역과 역할에 부합되는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영역과 원해에서 자체방어 능력을 구비하고 각종 작전영역 수행이 가능한 해군력을 구축함.

- 특히 해병대는 독자적인 사령부를 만들고 7개 여단 3만명 규모로 확대하여 동/남중국해, 대만해협 등 해외에서 작전이 가능하도록 개편 중에 있으며 잠수함 전력은 JIN급 SSBN 4대, SSN 7대, 차세대 핵잠수함 및 기존 핵잠수함 개량을 포함하여 최대 70척 규모이고 동/남중국해 군사적 충돌을 대비하여 장거리 타격, 정찰감시, 대함, 대잠, 방공 작전능력이 크게 개선된 신형 구축함, 순향함 등 35척 규모의 전력화가 진행됨.

- 한편 중국 해군은 원해작전능력 강화차원에서 중국 자체 건조한 항공모함 산둥호를 2022년까지 조기 전력화할 예정이며 추가로 2022년까지 핵항공모함 건조(가칭 상하이호)중에 있어 태평양 지역에서 해양권익 강화, 해상전투능력, 원정작전 및 A2/AD 작전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11)]

○ **공군**은 영토방공형에서 공방겸비용으로 전환하면서 조기경보,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전략수송 능력 등을 보강하고 있으며 장거리 지역까지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공군 건설도 구체화시켜 나감.

- 특히 새롭게 6개 공군기지를 구축하고 공군 비행사단 예하 연대를 여단으로 확대시키고 공수군단을 5개 여단과 1개 강습여단으로 개편하여 긴급 대응능력을 강화시켰으며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 및 FC-31, 신형전략 수송기 Y(運)-20개발과 2021년 상반기까지 선보일 예정인 초음속 장거리 스텔스 전략 폭격기인 H-20도 2025년까지 실전배치한다는 계획임.

---

11) 중국이 2018년 11월부터 상하이 창싱다오 장난 조선소에서 만들고 있는 세번째 항모는 중국의 두번째 항공모함이자 최초의 독자 건조 항공모함인 산둥호와 달리 세번째 항공모함은 선체의 각 부분을 만들어 최종 조립 장소로 보내는 방식으로 건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며 세번째 항공모함의 길이가 320m 이상으로 산둥함보다 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현재 추정 만재 배수량은 8만t으로 6만t 가량인 랴오닝함과 산둥함보다 크고 새 항모는 폭은 미국 신형 제럴드 포드급 핵항모보다 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자식 캐터펄트(사출기)로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임.
美 핵항모보다 크다"…중국 3번째 항공모함 내년 초 진수, 『한국경제』 2020년9월14일.

- 한편 적의 종심 타격이 가능한 전략 스텔스 폭격 무인기 GJ(攻擊)-11,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위성정보 훨씬 정확한 정보/첩보 수집이 가능한 극초음속 무인 스텔스 정찰기 WZ(無偵)-8 등 미래전에 대비한 신형 무기개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룸.

○ **로켓군은** 핵/미사일 억제 및 반격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전략적 억제능력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신속한 재장전이 가능한 사정거리 1,500km인 MIRV 탄두 둥펑(DF)-21D 미사일, 서태평양과 인도양, 남중국해 지역 정밀타격이 가능 한 IRBM급 미사일 둥펑(DF)-26 미사일, DF-100 초음속 순항 미사일, 핵잠 수함 탑재 JL(巨浪)-2 SLBM미사일, 미 본토 정밀타격이 가능한 ICBM급 CSS-10 Mod 2미사일, 다탄두((MIRV)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미사일 둥펑(DF)-41 등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향상됨.

- 특히 중국은 미국의 역내 미사일 방어망(MD)체제 무력화를 위해 기동핵탄두탑재미사일(MARV), 다탄두각개목표재돌입미사일(MIRV), 위장미사일(decoy), 레이더 탐지 방해용금속 파편 미사일(chaff), 반위성무기(ASAT) 등과 같은 각종 비대칭 미사일 분야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기울이고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공격력을 갖춤.[12)]

○ 사이버, 우주, 미래전에 대비하여 새롭게 만든 전략지원부대는 네트워크 체계국과 우주체계국으로 구성되는 사령부를 기반으로 전장환경 및 정보통신 보장, 정보보안 보안, 신기술 시험 등 임무를 수행하며 시스템 통합과 군민융합 등 통한 4차 산업혁명 도래와 새로운 미래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미 네트워크 체계국은 사이버전, 기술전, 정찰전, 전자전, 심리전을 담당하며 사이버 체계국은 우주작전 영역인 우주비행체 발사 및 지원, 우주정보지원, 우주계기신호 추적 등을 담당하는 등 미래전장이 될 우주분야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감.

12) 현재 중국군은 미군과의 군사적 분쟁시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미사일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어 각종 미사일 역량 강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 MARV 미사일는 발사 후 비행과정에 표적을 지속적으로 바꿀수 있는 미사일이며 MIRV 미사일은 한 개의 미사일 3-12개 탄두를 탑재하여 다수의 표적을 타격하는 미사일이며 decoy 위장미사일은 적의 미사일 요격 체제를 무력화 시키는 차원에서 핵을 탑재하지 않은 미사일을 핵탑재 미사일과 함께 발사하는 것임 아울러 chaff 금속파편 미사일은 다량의 금속파편을 담은 미사일을 우주상공에서 터트려 적의 위성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ASAT반위성무기는 적의 위성을 직접 요격하거나 타격하는 무기 체계임.

○ 2020년 6월23일 중국판 GPS인 베이더우(北鬥)시스템의 마지막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사실상 베이더우 3단계 발전계획이 완료되면서 더 이상 미국의 GPS를 의존하지 않고 중국군 스스로 독자적인 정찰, 위치추적, 군사작전 등 수행이 가능해짐.

- 특히 중국군 GPS 베이더우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새로운 연합작 전지휘체계인 C4ISR(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통합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해공군의 원거리 기동능력 및 중장거리 미사일 정밀타격 능력 등이 대폭 정밀화, 고도화되면서 억제력과 공격력 향상으로 이어짐.

Ⅳ. 주요 함의와 시사점

1. 함의

○ 최근 시진핑 지도부의 강군의 꿈이 본격화되고 이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강경정책도 기존 무역/기술 분야를 넘어 군사안보분야까지 확대되어 나타나면서 미중간 전략적 경쟁 및 군사안보적 갈등도 고조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미국은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강조와 군사력 현대화가 기존 미국 주도의 역내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첨단 신형무기개발과 국방비 증액, 쿼드(Quad) 및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같은 새로운 대중군사안보전략 추진을 밝힘.

- 한편 중국의 커진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군사비 증액과 함께 신시대 적극방어 군사전략 차원에서 역내 미군 군사개입 차단, 첨단신형무기 개발, 해외 영향력 투사 확대 등 새로운 군사안보전략을 추진하면서 역내 지역안보정세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하기 시작함.

○ 중국은 2035년까지 국방개혁과 군사력 현대화를 이루고 육/해/공군, 우주/정보/사이버, 민군합동능력 등을 확보하여 나아가 2049년까지 어떠한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기는(能打仗、打勝仗) 세계일류군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한 전략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미국과의 군사안보적 경쟁과 갈등은 점차 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더욱이 시진핑 지도부는 2049년까지 중국의 꿈 실현을 통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을 건설하여 경제기술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에서도 세계일류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대내외에 선포한 이상 미국과의 대결에 있어 일방적인 굴복하거나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의 국방력 강화와 군 현대화 추진을 새로운 군사안보적 위협이자 도전으로 상정하고 국방비 증액,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본격화, 중국의 A2/AD전략 강경대응, 핵/미사일 현대화 및 INF 탈퇴, 신형최첨단 무기개발, 역내 동맹국들과의 군사안보협력 강화 등 각종 정책초치들을 추진하며 새로운 대중군사안보전략을 본격화 함.

-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와 군사력 강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쿼드를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본격화한다는 밝힘.

○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기술 격차를 줄이고 남중국해, 대만해협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전훈련에 기반한 해/공군력 위주의 신속대응작전 전개와 더불어 군사력 현대화 차원에서 중장거리 미사일 증강배치, 정보/우주/사이버전 역량도 강화하고 있어 미국과의 군사적 대립과 충돌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역내 분쟁 가능성과 군사력 격차를 감안하여 비대칭 전략 강화차원에서 중장거리 핵/미사일 정밀타격능력 증강, A2/AD전력 강화, 조기경보능력강화, 우주/전자/사이버전 분야 등에 집중적인 투자와 역량을 늘려나가고 있어 미국과의 새로운 군비경쟁도 예상됨.

2. 시사점

○ 최근 미중간 새로운 차원의 군비경쟁, 대만해협긴장, 동/남중국해,인도-태평양 전략, 아시아판 나토 쿼드(Quad) 추진,북핵문제 등을 놓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 우리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 고 동맹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화가 거의 중단된 중국과의 정기 적인 군사안보 소통채널 구축을 다시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차원에서 적극 추진 중인 쿼드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자칫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쿼드 동참여부와 같은 민감한 외교안보사안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한편 미중간 새로운 핵미사일 군비경쟁 및 우발적 군사충돌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중 군사 핫라인 활성화, 한반도 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한미,한중,한미중 3자간 국방안보분야 소통협의채널을 추진하여 역내 긴장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미중 군사안보적 갈등 격화로 인해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 문제를 자국의 전략적 구도 속에서 바라보고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사드 배치와 역내 미사일 방어망(MD)구축, INF탈퇴와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 쿼드 플러스 가입, 남중국해문제, 한일 지소미아(GSOMIA)와 한미일 3국 군사안보강화 등에 있어 우리에게 전략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기의제들에 있어 한미동맹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한중간 상당한 갈등과 파장이 일어날 수 있어 다양한 국내외 변수와 정세 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향후 중국군은 자국의 핵심이익 수호와 미국의 역내 군사력 개입 차단을 위해 무기 현대화와 군사력 강화 등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이로 인해 미중간 군비경쟁 격화, 대만해협, 동/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갈수록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에게 상당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음.

- 이에 한국은 우호적인 미중관계 촉구를 도모하면서 중국의 군사안보 전략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역내 각종 문제 등으로 인한 군사안보적 긴장 고조와 갈등 혹은 충돌 발생 시를 대비한 새로운 대응전략을 적극 수립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요망됨.

참고 문헌

국방정보본부,「2019 중국 국방백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19).
이상현, "미국의 대중국 전략:'경쟁적 접근'함의와 파장,「정세와정책」2020-07월호(2020).
이흥석, "중국 강군몽 추진 동향과 전략,「중소연구」제44권제2호(2020).
설인효, "트럼프 행정부 대중군사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JAM-GC개념의 발전방향 분석을 증심으로." 「신안보연구」통권 191호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7).
정재흥,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과 한국의 과제,「세종정책브리프」2019-05호 (2019).
정재흥, "2019 중국 국방백서 분석과 평가",「세종정책브리프」2019-13호 (2019).
Ashley Townshend and others, *Averting Crisis: US Defense Spending, Deterrence and Indo-Pacific* (Sydney, Australia: University of Sydney, 2019).
Joel Wuthnow and Phillip C. Saunders, “Major Progress and Unfinished Business: China’s Military Under Xi Jinping,” *Global Asia,* Vol. 13, No. 1, (Spring 2018).
Michael Hutches, William D. Dried, Jason C. Perdew, Vincet D, Bryant, Kerry E. Moons,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A New Joint Operational Concept*,『Joint Quarterly』(Joint Chief of Staff, 2017).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au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RC 2019*,(Washington D.C: 2019, DoD).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Defense Posture Review 2017* (Washington D. C: Department of Defense, 2017).
DoD,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s Region*,(Washington D.C: 2019, DoD).
"미 국무부 차관 대만 방문에 성난 중국…고강도 무력시위,"『연합뉴스』, 2020년9월18일.
美 핵항모보다 크다"…중국 3번째 항공모함 내년 초 진수,『한국경제』, 2020년9월14일.
"미중 갈등 속 시진핑 "중국공산당·사회주의 비하 용납못해",『연합뉴스』, 2020년9월4일.
中, 서해·남중국해서 동시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국민일보』, 2020년8월24일.
"무역전쟁속 우주굴기 맹위, 중국판 GPS 베이더우 로켓 성장"『뉴스핌』, 2019년 5월 27일.
"中 장거리 스텔스 전략폭격기 H-20 연내 선보일 가능성,"『연합뉴스』, 2020년 5월4일.
中方正在參加俄“高加索-2020” 戰略演習實兵行動演練,『國防部網』, 2020年9月24日.
"在新時代繼承和弘揚偉大抗戰精神一一論學習貫徹習近平總書記在紀念中國人民抗日戰爭暨世界反法西斯戰爭勝利75周年座談會上重要講話,"『人民日報』, 2020年9月4日.
堅定不移, 奮力實現強軍目標,『人民日報』, 2020年8月20日.
"中國北鬥服務全球寫在我國完成北鬥全球衛星導航系統星座部署之際,"『新華網』,2020年6月23日.
連續三年發布開訓動員令,中國軍隊爲何重視實戰化訓練?『中國新聞網』, 2020年1月3日.
中央軍委2020年開訓動員令,『新華網』, 2020年1月2日.
"習近平, 走中國特色強軍之路,"『新華網』, 2019年12月11日.
中央军委军事政策制度改革咨询评估任务部署会在京举行”『解放军报』, 2019年11月26日.
美國“退約”對中國構成威脅 專家提三大措施應對,『環球網』, 2019年8月22日.
"美國正造就一個可能無法戰勝的敵人,"『人民網』, 2019年7月24日.
中國國防部, "新時代的中國國防,"『中國政府網』, 2019年7月24日.
中國國務院新聞辦公室,『新時代的中國國防』, 2019年7月1日.
"2019年人大常委會工作報告,"『人民網』, 2019年 3月15日.
習近平,“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中國共産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的報告』, 2018年10月18日.
"中國否認在阿富汗瓦罕走廊建立軍事基地,"『聯合早報』, 2018年8月30日.
中華人民共和國國防部新聞辦公室,『2015年中國的軍事戰略』, 2015年3月.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세종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ejong.org 문 의: public@sejong.org

『세종정책브리프』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